

정보시스템 개선... 약 33억원 재무효과 창출

- 업무지연 예방 및 처리시간 단축 등 업무효율화 달성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산관리 업무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업무지연을 예방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한 결과 약 33억원의 재무개선효과를 거뒀다.

본부는 업무지연율이 높은 자산취득, 위탁선급금 정산 및 임대료 징수 업무에 대해 조직·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연계, 업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의했다. 이에 일정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 지연업무에 대해 조기경보를 작동하고 필요한 조치를 통보하는 정보시스템을 지난해 3월 개발·적용했다.

그 결과 자산취득률이 30.8% 증가하고 그에 따른 임대대수익의 13억6000만원, 선급위탁사업비 조기정산 6억3000만원, 3년 이상 장기미수채권 회수 12억원 등의 성과를 냈다.

아울러 본부는 외부 고객의 다양한 IT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http://m.kr.or.kr)와 민원서비스(http://minwon.kr.or.kr)를 구축했다.

이영주 정보관리처장은 "IT부서가 단순한 지원조직이라는 종래의 관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한 결과"라며 "이를 바탕으로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IT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 통해 업무기준·절차의 투명성 강화

- 준법지원체계 구축으로 건설·계약분야 법적리스크 최소화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불필요한 규제 제거와 업무기준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부는 정관을 개정해 이사회 의결대상 내규를 37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하고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하도급계약 관련 규정 등 국민의 권리·의무나 협력업체의 이해(利害)와 관련이 있는 제도개선 때는 공단 홈페이지에 사전 예고해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규 개선을 단행했다.

또 내용 중복 및 사문화돼 규범력을 상실한 경영관리규정 등 11개 내규를 폐지하고, 철도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지침, 준공시설물 운영장애조사 및 처리지침 등 9개 내규는 신규 제정하는 등 내규체계를 대폭 정비했다.

본부는 향후 법률고문 개편과 변호사 채용 활용으로 사내 준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공사 및 용역계약은 사전 법률검토를 거쳐도록 해 건설·계약분야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법적분쟁을 방지할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일련의 제도개선을 통해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은 줄이고,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과 소통 위해 본사 사옥 편의시설 개방

- 작년 8000여명 이용... 이용객들의 만족도 높아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이계환)은 사회적 책임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육장과 회의실 등 본사 사옥 편의시설을 민간에 개방해 연간 8000여명이 이용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본사 사옥은 대전역 인근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시간당 2~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회의실 내 빌드 프로젝트, 인터넷 등 최신 설비를 사용할 수 있어 전남 고흥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와 경북 경산 경일대학교 등 전국 124개 기관 및 단체가 이용했다.

신철수 경영지원처장은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이 공단의 편의시설에 만족해 다시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설 개방을 더욱 확대해 국민 편의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작년 편의시설 개방을 통해 7200여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으며, 이 수입은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차입한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된다.

공단 최초로 SOFA 협상 지연에 따른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 국방부로부터 6200만원 수익 창출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토지보상이 끝난 대구 중구 태평동 일대의 미군부대 부지에 공단 최초로 부대시설 이전 지연에 따른 무단사용 변상금을 부과해 약 62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다.

본부는 대구 미군부대 시설물(창고)의 일부가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에 편입돼 SOFA 협약에 의거 미군부대와 실무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협의가 계속적으로 지연됐다. 이에 본부는 이전 협의와는 별도로 무단사용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공유재산과를 수차례 방문해 변상금 납부를 약속받았다.

당초 국방부는 미군부대의 시설물이 공익적임을 강조하며 예산 미확보를 내세워 무상사용을 요구하는 등 변상금 납부를 완강히 거부하는 부정적 입장이었다. 하지만 본부는 경부고속철도건설에 따른 부채가 16조에 이르는 등 공단 재무상태의 어려움과 무단사용료 부과 불가피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한 결과, 국방부에서는 2013년 예산에 반영한 후 3월 중으로 납부하기로 확정했다.

본부는 이를 계기로 62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은 물론 협상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됐다.

본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단의 재무개선을 위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본부 임경덕 기자)

영남본부 「품질의 날」 성과공유 경진대회 개최

- 경진대회를 통해 품질관리 공감대 형성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지난 20일 각 현장에서 추진한 '품질의 날' 개선활동 중 우수현장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성과공유 대회를 개최해 상호 공유 및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예산 심사를 거쳐 통과한 울산~포항 1공구 외 9개팀의 감리단장, 현장소장, 품질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최우수 현장은 '회생주름 관 콘크리트 차단장치 설치 및 연결부 장치 개선', 우수관리 현장은 '절연이음부 실리콘 시공'으로 선정됐다.

본부는 이와 같은 현장품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품질의 날'을 지정, 시행해 왔으며 향후 부실공사 예방 및 품질확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다짐하며 행사를 마쳤다.

(영남본부 윤증원 기자)

주요뉴스 ('12. 12. 24 ~ '13. 1. 17)

- 코레일 "인수위에 철도시설공단과 통합 건의"국토부는 반대... 통합면 KTX 경쟁 도입 차질(조선일보 12. 24)
- 철도역사 설계기준 이용객 중심 개편(충청투데이 12. 24)
- 코레일, 새정부 출범 앞두고 용산개발 공공사업화 추진 논란(한국일보 12. 24)
- 철도시설공단, 중국 고속철도 감리 수주 (서울신문 12. 26)
- 철도시설공단 올 예산 6,314억 감액 (서울경제 12. 26)
- 철도시설공단, 연말 나눔활동 (대전일보 12. 26)
- 용산 부동산개발에 협세 지원해 달라고? (서울경제 12. 26)
- "철도 안전 세계1위"는 거짓말 (조선일보 12. 26)
- 코레일, 사고를 산정때 死傷·탈선 100건 누락 (조선일보 12. 26)
- 베이징~광저우 2298km 달릴 고속철 (중앙일보 12. 26)
- 건설업체 해외 진출 지원 국토부, 건설기술 포털 운영 (파이낸셜 12. 26)
- 기차역 택시·버스 환승 쉬워진다 (서울신문 12. 27)
- 철도시설공단, 중국 고속철도 감리 수주 (국민일보 12. 27)
- [시설] 철도안전 세계 1위 통계를 신기루였다 (세계일보 12. 27)
- 부산진역 철도유류부지 오피스텔로 개발 (서울경제, 파이낸셜 12. 28)
- 철도공단 경영성과 공유대회 (충청투데이 12. 28)
- 국산 고속열차 '해무' 시속 400km 돌파 (경향신문 12. 28)
- 세종청사 문 '활짝' (서울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충청투데이 12. 28)
- 철도시설공 손실가스 감축 추진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12. 31)
- 고속철 대전·대구 통과구간 2월까지 궤도설계 (중도일보 12. 31)
- SOC예산3710억...여야 할 것 없이 민원 챙기기 혈안 (서울신문 1. 2)
- 의정부 경전철, 추위에 5번째 '동작 그만' (한겨레 1. 2)
- 철도시설공단 인원 대진충원 협회 (충청투데이 1. 3)
- 철도시설공 33억 재무개선 상시 모니터링 구축 성과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1. 3)
- '호남고속철 서대전 경유 안될 말' (광주일보 1. 3)
- 경기도 GTX 예산안 국회 통과 3개 노선 연내 조기착공(동아일보 1. 3)
- '박근혜 행복주택' 시동 ... 연내 시범구역 선정(한국경제 1. 3)
- 철도시설공단 사옥 편의시설 개방 호응(충청투데이 1. 4)
- 정부 예산 72% 상반기 배정(파이낸셜 1. 4)
- 서울~부산 무궁화호 열차 1시간가량 지연 승객 불만(국제일보 1. 4)
- 역간거리 짧아 제 속도 못내는 철도(서울신문, 서울경제, 충청투데이 1. 8)
- 정부, 중국과 건설분야 협력 강화(국제일보 1. 8)
- 건설사 공공발주에 쏠린 눈(대전일보 1. 8)
- 개통 6개월만에 120억 적자, 의정부경전철 파산설 '모락' (경인일보 1. 8)
- 철도관제업무, 철도시설공단에 이관키로(한국일보 1. 9)
- 철도 관제업무 시설공단으로 이르면 연내 이양키로(서울신문 1. 9)
- 철도사업 코레일 독점 깬다(한국경제 1. 9)
- 철도 관제권 시설공단으로(서울경제 1. 9)
- '철도 민영화 못박기' 관수에 비단 붓몰(한겨레 1. 9)
- 중소기업 설계 감리 참여기회 확대(충청투데이 1. 10)
- 신경의선·공황장애 울며 연결, 이젠 인천공항까지 KTX 운행(조선일보 1. 10)
- 수서발 KTX 개통 6개월여 연기, 동시 개통예정 호남 KTX도 차질(동아일보 1. 10)
- "철도 적자지속엔 호남고속철 요금 1만원!" (문화일보 1. 11)
- 철도 운전·정비 등 전문자격증제 도입 (문화일보 1. 11)
- 시속 401.4km 총알잠수 '신기록' (경기일보 1. 11)
- 국내 건설산업 경쟁력 세계 7위 (국민일보 1. 11)
- 철도시설공단 올해 철도건설 8조 신규 발주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1. 14)
- 안산·평택 등 수도권역사 '철도용지 임대주택' 추진 (매일경제 1. 14)
- 김포도시철도 9년만에 본격도 (인천일보 1. 14)
- 철도 도로 밑에 일제형으로... (서울경제 1. 14)
- 원주-강릉 복선전철 6개 공구 상반기 착공(강원도민 1. 15)
- 기반시설은 국가소유 그대로... 독점 운영권만 경쟁체제로 (동아일보 1. 16)
- '수도권 KTX 민간경쟁 도입' 갈등 심화 (국민일보, 한겨레 1. 16)
- 철도인 대전서 신년교례회 (중도일보 1. 16)
- 후진하는 코레일 누적손실 11조원 (중도일보 1. 16)
- 국유철도 전철화율 69%, 2020년까지 85% 추진 (중도일보 1. 17)
- 기대반 우려반 ... 용인경전철 곧 달린다 (경기일보 1. 17)
- 예산누수 막을 총괄센터 세운다 (매일경제 1. 17)
- 국토교통부 vs 해양부 "물류업무 내 것" 신경전 (동아일보 1. 17)

강원본부, 2013년 안전 및 청렴결의대회 시행

강원본부(본부장 이동춘)는 2013년 새해를 맞아 지난 8일 치악산에서 협력사와 합동으로 2013년 안전 및 청렴결의대회를 시행했다.

12월 내린 눈이 그대로 남아있는 영하 13도의 추운 날씨속에서 본부 및 협력사 직원 70여명은 치악산에 쌓인 눈을 전부 녹일 기세로 올해의 사업에 대한 안전시공을 다짐했다. 또한 공단 내 청렴부 분 일등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결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난 21일 새롭게 부임한 이 본부장은 "무재해 무사고를 위해 현장 작업자들이 모두 내 가족, 내 형제라는 생각으로 안전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안전장비 착용 등 기본에 충실해 줄 것과 작업 시 불안정한 요소가 발견되면 지나치지 말고 즉시 개선해 주기를 요청했다.

한편 본부는 1시간여 진행된 행사를 위해 모든 참석자들에게 핫팩을 제공해 치악산의 한기에 대비하며 협력사 직원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강원본부 이성찬 기자)



연말 '사랑의 나눔활동' 전개

- 12개 복지시설 및 300여 소외가정에 온정의 선물 전달 -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24~26일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선로변 노인, 아동, 장애인 및 독거노인 시설을 방문해 800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

동구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과 아동시설인 나사렛 집을 방문한 김광재 이사장은 나눔활동을 통해 "연말연시 철로변 소외 이웃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조금이나마 소외이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연말을 맞아 본사와 5개 지역본부에서 철도주변 아동보육시설, 장애인 시설, 노인종합복지관 등 12개 시설(사랑의먹거리나눔운동본부, 동구다기능종합복지관, 나사렛 집, 뽕엘의 집, 샘골지역아동센터, 밀알복지관, 판암사회복지관, 서울지구촌사랑나눔, 용산구립장애인보호센터, 순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연탄은행, 부산중구노인복지관) 및 지역의 소외 가정(KR소년단, 1사1촌, 철로변 주민 등) 300여 가구를 찾아 김치, 연탄, 필요물품, 성금 등 총 5700만원 상당의 연말 나눔활동을 펼쳤다.

영남본부, 온정의 사랑나눔에 앞장서

- 복지관과 함께 소외 계층에 지속적으로 따뜻한 손길 뻗어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부산 중구 관내 복지관과 2005년부터 자매협약을 맺고, 사회 소외계층인 약 400여 세대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활동에 앞장섰다.

영남본부는 2012년 한 해 관내 복지관과 연계해 설명절 정나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효문화 축제, 추석명절 사랑나눔 등 각종 행사에 사회공헌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또 KR영남봉사단은 여러 나눔행사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함께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공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본부는 지난해 기상이변에 따른 한파가 잦아짐에 따라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전기방석을 구입해 전달했다.

본부는 앞으로도 복지관과 함께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따뜻한 손길이 부산시 전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영남본부 김시환 기자)

'장대레일 용접공장 견학' 행사

- 1사1촌 자매결연 마을 어르신 초청 -

기술본부(본부장 최광운) 시설장비사무소는 지난 21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충북 청원군 가덕면 심항리 마을 주민 35명을 초청해 장대레일 용접공장 견학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은 사무소 용접공장에서 장대레일 생산과정을 견학하고 구내에 설치된 무가선트램을 시승했다.

사무소는 이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폐비닐 수거, 농번기 일손 돕기, 농기계 수리, 어려운 이웃 연탄 나눔 등 공단의 보유시설과 업무역량을 활용해 다양한 맞춤형 나눔활동을 실천해 왔다.



- 건설본부 김포지하철건설사업단 최영만 부장 부친상 - 발인: 1월 12일
- 강원본부 사업지원부 오재훈 차장 부친상 - 발인: 1월 14일
- 경영지원부 동매중부PM 민경화 부장 부친상 - 발인: 1월 26일(토) 12시
- 발인: 1월 14일
- 장소: 대전서구 만년동 크리스탈명품골프 3층